

# 우크라이나 동서 갈등의 기원과 미래 : A. 스미스의 에스니에(ethnie) 개념을 중심으로



송 태 희 (SBS비즈)  
(bigsmilesong@naver.com)

## 국문요약

이 글은 우크라이나의 동서 갈등을 A. 스미스의 에스니에 개념을 통해 분석하고자 한다. 즉, 단일한 우크라이나를 지역적 단위로 나눠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들어있던 에스니에가 민족을 형성하는 과정으로 분석한다. 이를 역사문화적 차원, 정치적 차원으로 나눠 분석한다. 역사문화적 차원에서 우크라이나 민족주의를 주도한 것은 서부 에스니에였다. 정치적 차원에서 독립 후 동서부 에스니에는 2014년 이전까지는 권력을 교체, 공유해 왔다. 하지만 2014년 이후 러시아의 크림 병합, 동부 일부 지역의 독립 선언은 서부 에스니에 중심의 권력체제를 낳았다. 그 결과 서부 에스니에 중심의 우크라이나 민족이 형성되고 있고, 이를 우크라이나 내부 시계열 조사 결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 시민적 정체성이 강화되는 것도 알 수 있다. 하지만 아직 우크라이나 민족형성의 방향을 짐작하기는 어렵다. 민족 형성을 위한 '포용'이 과제이다. 또 나치 협력이라는 과거사를 어떻게 극복할지도 큰 과제이다.

주제어 : 우크라이나, 동서부, 에스니에, 민족, 2014년

# I. 들어가며

## 1. 문제의식과 분석 방향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면전 과정에서 우크라이나, 러시아 양국이 각각 주장하는 전쟁의 정당성과 관련해 우리에게 선뜻 이해가 가지 않는 대목이 있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전쟁 명분으로 우크라이나의 ‘비(非)나치화’를 내세운 것이다.<sup>1)</sup>

이를 국내 미디어에서는 아예 다루지 않거나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다. 푸틴이 우크라이나의 네오나치 세력 제압을 전쟁의 명분으로 내세웠다는 분석 정도였다.

하지만 이는 역사적 상징을 이용하려는 푸틴의, 고도로 계산된 다목적 전략으로 분석된다. 푸틴의 이른바 비나치화 명분은 첫째 우크라이나 동서 균열을 자극해 내부 분열을 유도하고 둘째 러시아 민족주의로 러시아 내부 동력을 확보하려는 전략으로 보인다.

푸틴은 제2차 세계대전을 환기시켜 러시아내 민족주의를 다시 소환하려 하고 있다. 러시아 민족주의의 핵심 기억은 나치와의 제2차 세계대전이다. 조정남(1996)에 따르면 러시아 민족주의는 나치와의 제2차 세계대전을 민족주의의 상징으로 끊임없이 확대, 재생산해 왔다.<sup>2)</sup>

여기에 더해 푸틴은 반나치를 환기시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서방 국가들의 분열까지 노린 것으로 해석된다.

가장 폭발력이 있는 노림수는 우크라이나 동서 분열이다. 우크라이나 동서는 제2차 세계대전 중 동족상잔(同族相殘)의 기억이 있다. 서는 나치의, 동은 소련의 전위대가 되어 전투를 치렀다. 서는 자발적으로 홀로코스트에 나서기도 했다.

나치에 대한 기억은 현재 우크라이나 민족국가 형성과정에서 숨기고 싶은 역사다. 반(反)폴란드, 반(反)소련의 기치 위에 독립을 위해 안간힘을 썼던 약소 민족주의의 비극이다.

---

1) 푸틴 “탈나치화 추진”...젤렌스키 “홀로 남겨져 싸우는 중”(KBS 2202/02/25) 출처: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404292&ref=A> (검색일: 2022. 06. 15.); 우크라이나 전방위 급습한 푸틴, 우크라이나의 ‘괴뢰국화’ 노리나 (한국일보 2022/02/25) 출처: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2022511320004659> (검색일: 2022. 06. 05.); 러 외무장관 “3차대전은 파멸적인 핵전쟁 될 것” (연합뉴스 2022/03/03) 출처: <https://www.yna.co.kr/view/AKR20220302194652080> (검색일: 2022. 06. 01.).

2) 구소련과 러시아는 제2차 세계대전을 ‘대조국전쟁’으로 상징화하고 이를 민족주의 교양의 수단으로 이용했다. 러시아 민족주의를 구성하는 주요 핵심 요소는 짜리즘, 전제정, 러시아정교가 꼽힌다. 이런 관점에서 푸틴의 독재와 러시아정교는 우크라이나 동부지역의 정체성과 최근 전쟁발발을 설명할 수 있는 요소이기도 하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부 서부 우크라이나 민족주의 세력은 나치의 전위대 역할을 한 바 있다. 소련의 점령에 반대하고 독립 국가를 건설한다는 명분이었다. 독립 운동과 친나치 사이의 간극은 현재에도 작동하고 있는 우크라이나의 국내외 정치기제이다. 또한 우크라이나의 민족국가 형성과 관련해 극복해야 할 난제이다.

우크라이나의 동서 갈등은 가변적이다. 1991년 독립 이후 국민국가(Nation State)를 형성해 가는 우크라이나 민족주의 관점에서 보면 내부 갈등과 러시아와의 대결 속에 매우 유동적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오렌지혁명, 유크로마이단, 크림합병, 최근의 전면전 등 극도로 긴장된 역사적 파고 속에 강렬하고도 변화무쌍하게 움직이고 있다. 찰스 틸리(2018)의 지적처럼 전쟁이 민족국가를 만들고 민족국가는 전쟁을 만든다.

구소련이 해체되면서 생겨난 독립국가들에서는 명칭(titular)민족과 남아 있는 러시아 민족 간에 갈등과 긴장이 있어 왔다. 우크라이나도 그러한 대표적 사례다. 여기에 푸틴의 러시아는 즉각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수로 작용해 왔다. 동서 갈등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이었다.

우크라이나 동서 갈등은 사회적 충돌, 국내 정치, 경제, 외교안보 등 모든 갈등의 시작점이자 귀결점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동서 갈등을 우크라이나 민족(Nation)이 형성되어 가는 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으로 보고자 한다. 즉 민족은 만들어 진 것이라는 근대론의 관점을 수용하되, 우크라이나 민족은 이미 만들어진 것이라기보다는 동서의 갈등 속에 민족형성(nation building)이 되어가는 과정에서 유동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에 주목하고자 한다.

근대론은 논리적으로 명확하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개념과 사례를 적용함에 있어 지나치게 간결해 질 수 있다는 약점이 있을 수 있다(강진웅 2021, 123-135). 특히 서유럽 국가와 역사적 경로가 다른 우크라이나와 같은 사례를 설명하기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이에 본고는 A. 스미스의 에스니에(ethnie)<sup>3)</sup>의 개념을 적용해 두 에스니에가 민족(Nation) 형성하는 과정으로 우크라이나의 사례를 분석한다. 이는 19세기 민족주의 발흥에서 소련의 공화국, 소련 해체와 독립 등 일련의 과정과 그 연결성을 설명하는데 유용할 것이다.

---

3) 에스니에(ethnie)는 인종적 민족주의로 번역되기도 한다. 이 글에서는 A. 스미스의 표현을 한글로 그대로 쓴다. nation은 민족, nation state는 민족국가, 국민국가로 쓰되 필요할 경우 영어를 병기한다. ethnic과 nation이 우리말 구분이 굳이 필요하지 않을 경우, 민족으로 표기하기로 한다.

두 에스니에의 갈등과 통합을 역사문화적 차원과 정치적 차원에서 살펴보고, 민족(Nation) 형성에 있어 동부, 서부 에스니에의 정체성 변화, 시민권에 대한 정체성 변화 방향까지 분석을 모색한다.

이러한 분석은 러시아와 전쟁으로 관심사로 떠오른 우크라이나에 대한 이해를 심화할 것이다. 또 향후 우크라이나 민족주의의 경로를 전망하고 이에 대한 우리의 대응에도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우크라이나를 설명, 이해하는데 있어 러시아의 시각에 경도 되는 것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또 경제, 안보 논리에 편중될 수 있는 관점을 좀더 다양화 할 수 있을 것이다.

우크라이나 민족주의의 '과거사' 문제는 우크라이나가 풀어야할 내부문제 일 뿐 아니라 국제문제이기도 하다. 같은 맥락에서 미국의 단일대외 외침에도 불구하고 서유럽 국가의 미묘한 온도차이 기저에 경제적 이해 뿐 아니라 이같은 '과거사' 문제가 놓여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우크라이나 내외를 둘러싼 정치, 국제관계의 동학은 과거에도 그랬던 것처럼, 현재도, 미래도 매우 복잡하게 전개될 것이다. 이를 만들어진 '하나'의 우크라이나가 아니라 하나를 향해 가는 '둘'로 볼 경우, 좀더 적실성 있는 분석의 도구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 2. 선행 연구와 이론적 배경 - 에스니에(ethnie)와 민족(Nation)형성

민족과 민족주의 개념은 매우 난해하다. 더군다나 우크라이나 등 구소련으로부터 독립한 국가들의 경우 개념 적용이 더욱 어렵다. 구소련의 공화국은 국가(state)인가? 각 공화국의 명칭(titular) 민족은 민족(nation)으로 보아야 하는가? 그렇다면 독립후 민족주의는 어떤 개념으로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근대론의 관점에서 근대화가 민족주의의 짝이라면 이들 국가들의 근대화는 구소련시절 이루어진 것인가? 일부에서 탈민족주의를 논의하고 있는 상황에서 독립 과정과 독립 후 나타나는 민족주의 현상은 어떤 개념으로 보아야 하는가?

이런 개념 적용의 어려움 속에서 우크라이나 민족주의에서 나타나는 동서 갈등을 지역갈등으로 보거나 국가(nation) 형성의 과제로서 주목했다(우준모 1997; 문명식 2001; 김경순 2004; 박태성 2007; 박종호 2010; 우준모·김종현 2013; 이선우 2015 등). 대체적으로 우크라이나의 동서 갈등은 독립 이후 우크라이나의 현실 정치와 국제관계에 주요 요인으로 설명되어 왔다(김경순 2004, 2017; Timm Beichelt 2004 등).

하지만 지역갈등으로만 설명할 경우, 독립 후 우크라이나의 국가 형성에 있어 동서

갈등의 정치적 동학을 협애하게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선거로 표출되는 결과를 단순히 지역 간 대결만으로 볼 수 없다. 오히려 국가 형성 초기, 아니 그 이전부터 배태되어 있던 에스니에의 문제가 행정적 지역 그리고 정치 과정과 결부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러시아, 폴란드, 미국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다. 두 에스니에간 갈등과 통합의 관점에서 볼 때 역사적 맥락 이해가 풍부해 질 수 있다.

민족주의는 소련해체를 추동했다. 그리고 소련해체 이후에는 국가가 다시 민족주의를 추동하고 있다. 이같은 역동성과 연결성을 확보하기 위해 A. 스미스의 에스니에(ethnie) 개념을 적용, 분석한다. 즉 우크라이나 민족주의를 구소련시절 각 공화국별 명칭민족(titular nation) 즉 에스니에가 독립 후 새로운 민족(nation)형성을 하고 있는 과정으로 보고자 한다.

우크라이나 명칭 민족은 구소련 공화국의 다른 명칭 민족과 성격이 달랐다. 역사문화적으로 단일성이 확보된 구소련의 다른 명칭 민족과는 달리, 우크라이나의 경우 동서 두 개의 에스니에로 구성되어 있었다는 것이 본고의 관점이다.

에스니에 개념은 A. 스미스가 제시했다. 그는 근대 이전, 아직 민족(nation)과 같은 정치 단위가 되기 전에 문화적, 인종적 민족을 에스니에로 개념화했다. 에스니에는 공동의 신화, 역사, 문화, 특정한 영토와 연대의식을 갖고 있으며 명명된 집단이다(A. 스미스·이재석 역 2018, 10).

모든 에스니에가 민족(Nation)이 되지는 않지만 모든 민족은 에스니에였다. 에스니에는 종족적, 문화적 공동체 즉 원초주의적 성격을 갖고 있는데 민족(Nation)이 되는 과정은 다양하다.

그런데 모든 민족은 에스니에 요소와 영토적 원리를 특징적으로 하고 있다. 여기에 공통된 분업체계(경제 영역), 구성원의 평등한 법적 권리, 즉 시민권(정치 영역)이 있어야 안정적으로 민족을 형성할 수 있다. 즉, 국가체제 안에서 시민권이 보장되지 않을 경우, 안정적 민족형성을 기대하기 어렵다.

시민권은 혈통과 문화의 공동체를 넘어 새로운 정치적 통합의 민족 정체성을 제공하는 제도이자 가치이기 때문이다. 시민권은 개인의 권리와 더불어 공동체에 대한 정체성을 형성한다. 즉, 종족을 넘는 정치적 공동체를 가능케 하는 요소이다.

시민권은 신분과 계급의 경계를 횡단한다는 점에서 근대적 특성을 안고 있다. 따라서 시민권이 보장되어야 종족을 넘어선 안정적인 민족 국가를 형성할 수 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다른 종족 간 통합 대신 내부 분열과 갈등이 재생산된다. 과거 미국의 남북 전쟁 등은 물론 최근 유럽의 통합과 이주민 문제(홍태영 2011, 237-242), 한국의 이주민 문제는 모두 시민권과 정체성 형성, 통합의 문제를 낳은 사례이다.

민족형성 과정<sup>4)</sup>에서 A. 스미스는 영토 안에 다양한 에스니에가 새로운 정치문화를 창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지배적 에스니에가 자신의 신화를 강요하거나 시민권에 있어 차별이 있을 경우 민족 형성은 파열을 낼 수 밖에 없다. 즉, 에스니에가 민족을 형성하는데는 동원과 더불어 ‘포용’이 수반되어야 한다(A. 스미스·이재석 역 2018, 340-350). 시민권은 주권내 포용을 의미한다.

에스니에의 민족(Nation) 형성은 어떤 과정과 차원에서 이뤄지는가. 여기에 대해 A. 스미스는 문화적 차원과 정치적 차원을 동시에 강조한다. 에스니에가 민족이 되는 경로는 군사, 재정, 행정 등을 통해 중산층과 외딴 지역을 통합하는 국가지원 전환(state-sponsored transformation)이 있고, 엘리트가 교육 등을 통해 전환시키는 동원화가 있다(엄구호 2011, 173-176). 두 차원은 시간적 순서를 두고 진행될 수 있다.

A. 스미스의 에스니에 개념의 장점은 근대론과 원초론 입장을 절충하고 있는 것이다. 민족이 근대적 현상임을 받아들이면서도 근대론이 갖는 단절성을 극복하고 전근대와 근대의 연속성을 제시했다. 이를 통해 근대론이 갖는 유럽 중심의 제한적 설명 범위도 확장시켰다(김지욱 2013, 357-370).

따라서 A. 스미스의 개념은 소련 성립 이전과 해체 이후 우크라이나 동서 갈등을 분석하는데도 유용할 수 있다. 우크라이나 동부와 서부는 언어, 인종, 종교 등은 물론 구소련 시절에도 각각 다른 정체성을 갖고 있었다.

우크라이나의 동서 구분은 드네프르 강을 중심으로 한 지정학적 구분이기도 하지만 근대화를 이루기 전에 종교, 언어 등에 있어서 다른 에스니에를 구분하는 특성이기도 하다. 통합 기억은 20세기 초 짧게 있었다. 이는 19세기 민족주의자들의 발명품이었다.

동부는 인종적으로 동슬라브인이며 대규모 러시아인 이주민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화적으로 동방정교회가 주류를 이뤄왔다. 우크라이나 인구의 약 20%가 러시아인이며 이들 중 80%가량이 정교회를 믿는다. 크림, 드네프르 강 동부에 살고 있다. 서부는 서슬라브 영향이 강하다. 폴란드, 오스트리아의 영향을 받아 정교 카톨릭(우니아트) 문화 속에서 자의식을 키우며 유럽의 일부라는 의식이 강하다(문명식 2001, 1-3).

언어도 다르다. 서부가 우크라이나어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면 동부는 러시아어 사용자가 비교적 많은 편이다. 경제적으로도 동부가 구소련에 의한 군수, 항공 등 제조업이 발달했다면 서부는 농업, 관광이 발달했다.

---

4) A. 스미스의 에스니에와 민족 형성 논의에 대한 반론도 있다. 사례 중심이라는 비판이다. 박동천은 A. 스미스의 에스니에 개념이 체계성을 확보하는데 실패했다고 본다. 에스니에가 근대 민족형성으로 이어지는 경우와 그렇지 못한 경우를 체계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규칙을 찾지 못했다는 것이다(박동천 2008, 38-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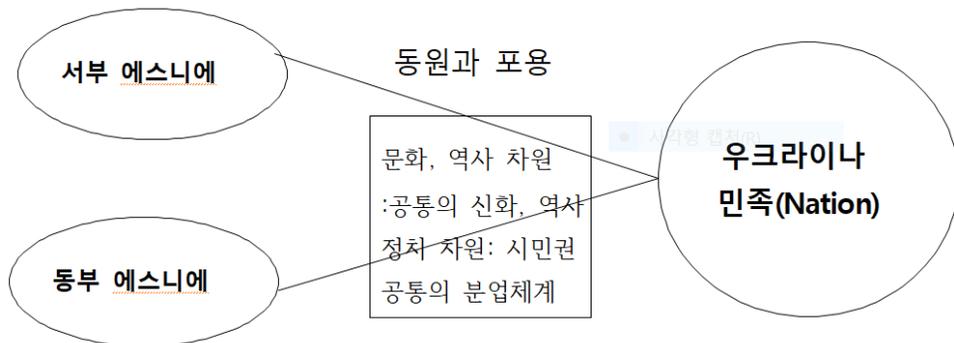
두 에스니에 간 역사적 정체성의 기원은 키이우 공국, 카자크 등에 대한 해석에 있다. 역사적 기원에 대해 러시아와 다른 정체성을 제시한 주체는 19세기 이후 발흥한 서부 중심의 우크라이나 민족주의였다.

폴란드, 러시아의 '수탈'이 동부와 서부를 하나로 묶었다. 그 결과 아주 짧은 기간 우크라이나는 독립을 경험한다. 하지만 다시 폴란드 지배하에 들어간 서부 에스니에는 제2차 세계대전 과정에서 폴란드, 러시아로부터 독립한다는 명분으로 나치에 협력하며 반소 무력 투쟁까지 전개했다. 전후 결국 서부는 소비에트 연방의 일원이 되어 동부 에스니에와 함께 우크라이나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이 되었다.

구소련해체 이후 우크라이나의 국민국가(Nation State) 형성은 2014년을 분기점으로 극적 변화를 맞고 있다. 서부 에스니에 중심의 국민국가 형성이 강화되고 있다. 2014년을 전후로 유로마이단 시위, 러시아의 크림 침공 등으로 탈러시아화 정체성이 강화되고 있다. 탈러시아화 정체성은 서부 에스니에 중심의 우크라이나 민족주의의 다른 이름이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동부 에스니에와의 단일성을 강조할수록, 또 이를 물리적으로 강제할수록 서부 에스니에 중심의 우크라이나 민족주의는 더 강화되고 있는 것이다.

우크라이나 동서 갈등은 단순한 지역갈등이 아니다. 두개의 에스니에가 충돌, 배제, 통합을 시도하며 새로운 국가(State)와 짝을 이루는 새로운 우크라이나 민족(Nation) 형성을 의미한다. 본고는 역사적으로 우크라이나 민족은 원래 하나였는데 동서로 균열된 것이 아니라 두개(혹은 그이상)였던 에스니에가 동적 역학을 거쳐 하나의 우크라이나 민족(Nation)으로 통합되는 과정으로 설명한다. 이를 다음과 같은 도표로 단순화 할 수 있다.

〈그림 1〉 우크라이나 동서 에스니에의 민족 형성 개념도



## II. 우크라이나 동서 갈등의 기원과 미래

### 1. 역사 문화적 차원

역사, 지리, 인종, 언어적 분포와 시기에 따라 우크라이나의 지역적 구분은 기준에 따라 흔히 2개(동부, 서부) 3개(동부, 서부, 중부) 혹은 4개(동부, 서부, 중부, 남부), 5개(서부, 서남부, 중부, 동부, 남부) 지역으로 나뉜다. 이중 가장 세분화된 5개 지역적 특성을 살펴본다(우준모 1997; 박태성 2007 등).

5개 지역적 구분은 키이우 지역을 중부로 구분한다. 동부는 하리코프와 돈바스 지역이다. 역사적으로 러시아와 밀접한 관계를 맺으며 역사, 언어, 경제, 문화를 발전시켜 왔다. 인종적으로 러시아인의 비율이 30~40%에 이른다. 종교는 러시아와 같은 동방정교를 믿고 있다.

남부는 크림 자치공화국과 세바스토폴 특별시와 그 배후로 구성되어 있다. 2014년 러시아의 무력 병합 이후 우크라이나의 주권이 미치지 못하는 지역이다. 러시아는 크림을 러시아 공화국의 자치공화국으로, 세바스토폴을 러시아 연방의 연방시로 승인했다. 하지만 아직 국제적 승인을 받지 못했다. 크림 반도는 인구의 3분의 2가 러시아인이다. 역사적으로 흐루시초프가 우크라이나에 양허한 지역으로 구소련의 흑해함대가 위치한 곳이다.

서부는 리비우<sup>5)</sup>를 중심으로 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폴란드, 리투아니아, 오스트리아와 밀접하다. 리비우는 지리적으로 11세기~16세기 폴란드의 수도였던 크라코프와 약 330km 떨어져 있다. 수도 키이우 보다 가까운 거리이다. 이 지역은 할리치나<sup>6)</sup> 지역으로 불리며 러시아와 구분되는 민족적(ethnic) 색채가 가장 강한 지역이다.<sup>7)</sup> 오랜 기간 리투아니아와 폴란드의 지배를 받았다. 본격적으로 러시아의 통치를 받은 것은 제 2차 세계대전 이후다. 종교적으로 동방 카톨릭, 유니아트교(Униатская Церковь, the Uniate Church)<sup>8)</sup>를

5) 주변국이 이 도시를 부르는 이름은 다양하다. 함축적으로 복잡한 역사성을 보여주고 있다. 우크라이나어 Львів (리비우), 러시아어 Львов (리보프), 폴란드어 Lwów (르부프), 독일어 Lemberg (렘베르크)로 불린다.

6) 우크라이나어 Галичина (할리치나), 러시아어 Галиция (갈리치야), 폴란드어 Galicja (갈리치아), 독일어 Galizien (갈리치엔) 영어는 Galicia (갈리시아)로 표기한다.

7) 할리치나 또는 갈리치아 지역은 지리적으로, 역사적으로 폴란드 왕국의 수도 크라쿠프까지 포함한다. 지리적으로, 역사적으로 갈리치아 서부는 폴란드, 동부는 우크라이나령을 의미한다. 갈리치아 지역의 2대 도시는 폴란드 왕국의 수도였던 크라쿠프, 그리고 지금의 리비우이다. 이 글에서 할리치나는 우크라이나 지역만을 한정해 칭하기로 한다.

8) 1592년 브레스트 회의에서 공식 출범했다. 통합을 의미하는 유니아트 교회는 지배층 카톨릭 폴란드 귀족과 피지배층 정교 농민이 갈등을 빚다가 타협한 정치적 산물이다. 동방 정교와는

민는 지역이다. 제레는 동방정교이지만 로마교황청의 권위체계를 따른다.

서남부는 체르니우치(Чернівці)를 중심으로 하고 있다. 본래는 루마니아의 전신 중 하나인 몰다비아 공국의 영토로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지배를 받았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소련이 우크라이나 영토로 병합했다.

우크라이나를 4개 지역으로 구분할 경우 키이우를 포함한 중부, 리비우 중심으로 남서부를 포함한 서부, 크림과 배후 지역을 포함한 남부, 하리코프, 돈바스를 중심으로 한 동부로 구성된다. 또 서부, 중부, 동부 3개 지역으로 나누기도 한다. 이 경우 동부는 크림을 포함한다.

우크라이나를 동서, 2개 지역으로 나눌 경우 기준은 드네프르 강이 된다. 강을 경계로 기준 서부에 드네프르 강 서편의 중부, 크림반도 좌측의 서남부를 포괄한다.<sup>9)</sup>

드네프르 강을 중심으로 한 동서 구분 외에 언어 사용에 따라 동북부 수미주에서 오데사에 이르는 비스듬한 직선을 동서 구분선으로 보기도 한다. 이 경우 키이우 등 중부지역이 서부에 포함되는 대신 헤르손 등 크림반도 배후 남부가 동부에 포함된다(허승철 2009, 317-318).

이 글에서는 데이터 자료에 따라 지역구분을 소개하되 동부와 서부 에스니에를 언급할 때는 언어, 문화적, 정치적 측면에서 동북부 수미주에서 오데사에 이르는 사선의 구분을 따르기로 한다. 에스니에의 주요 구성요인인 언어, 종교적 상황을 잘 반영할 수 있기 때문이다.<sup>10)</sup>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가 화력을 집중하고 있는 지역도, 드네프르 강을 기준으로 한 것보다 이 선에 좀 더 가까운 경향이 있다.

우크라이나 동서 에스니에가 통합된 것은 20세기 초,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소련의 공화국, 독립 이후 우크라이나 이렇게 세시나다. 20세기 초 짧은 통합의 경험에는 19세기 이후 발흥한 서부 에스니에 민족주의가 있었다. 서부 민족주의자들은 러시아와 다른 역사적 정체성을 주조했다.

---

극렬한 대결을 벌이곤 했다. 언어와 함께 동서 에스니에를 나누는 역사문화적 차원의 핵심 요소다.

9) 드네프르 강을 기준으로 한 동서 구분을 드네프르 강 좌안(Лівобережний), 우안(Правобережний)으로 표현하기도 한다. 이 경우 좌안은 강 동쪽 즉 동부를, 우안을 강 서쪽, 서부를 의미한다. 강이 흘러가는 방향을 기준으로 표현한 것이다.

10) 지역별 여론 조사와 분석에 있어서는 해당 자료의 지역 구분에 따른다. 또 크림 사태 이후의 크림지역을 아예 남부에서 제외한 구분과 자료도 있는데 이런 구분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표시하기로 한다.

〈그림 2〉 수미-오데사 선에 따른 동서 에스니에 구분<sup>11)</sup>



하지만 서부 우크라이나는 다시 폴란드 지배를 받다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소련의 영토가 된다. 동서 우크라이나의 본격적 통합은 역설적으로 구소련에 의해 이뤄졌다. 하지만 구소련 해체 이후 러시아와의 대결 속에 서부 중심의 우크라이나 민족주의가 다시 강화된다.

### 1-1 두 에스니에의 기원

에스니에는 공동의 신화, 역사, 영웅을 주요한 상징체제로 하고 있다. 우크라이나의 신화, 역사, 영웅은 19세기에 만들어 졌다. 유럽의 민족주의 세례 속에 서부 에스니에가 만들어 낸 것이다. 셰우첸코(Тарас Григорович Шевченко, 1814년~1861년)는 우크라이나어를 민족어로 만들었고(성동기·허승철 2018), 흐루셰우스키(Михайло Сергійович Грушевський, 1866년~1934년)는 근본적으로 러시아와 다른 우크라이나 역사 정체성을 만들었다. 그는 우크라이나 역사를 만들었을 뿐 아니라 1917년 우크라이나 역사상 최초의 공화국인 우크라이나 인민공화국의 국가원수(의회 격인 라다의 의장)였다(한정숙 2014).

제1차 세계대전과 볼셰비키 혁명 이후 혼란기, 동서 우크라이나는 각각의 국가를 건설하고 1920년 통일을 선언하기도 했다. 하지만 곧 서부는 폴란드, 동부는 소련의 영토가 된다.<sup>12)</sup>

11) 주우크라이나 대사관 홈페이지(<https://overseas.mofa.go.kr/ua-ko/index.do>)에 있는 우크라이나 지도를 바탕으로 재가공하여 만든 것임.

12) 이 시기는 그야말로 격변의 시간이었다. 세계 제1차대전, 오스트리아 제국의 해체, 볼셰비키

### ● 키이우(Київ, 러시아어 키예프 Киев) 공국

서부 에스니에의 역사 정체성을 이루는 것은 키이우 공국과(9세기~13세기)과 카자크다. 키이우 공국의 계승자는 러시아가 아니라 우크라이나라는 것이 서부 에스니에가 주조한 역사다. 키이우 공국 - 리투아니아 대공국 - 우크라이나로 이어지는 정통성을 주장한다. 반면, 러시아는 키이우 공국의 전통성을 모스크바 공국이 계승한 것으로 보고 있다(한정숙 2014, 395-396).

호루세우스키는 키이우 공국을 건설한 이들을 루테니아(Ruthenia)민족으로 서술한다. 그에 의하면 루테니아인은 슬로바키아 북동부 지역의 사람들로 우크라이나인, 벨라루스인을 지칭할 때 사용되는 용어로 러시아인과 구별되는 단어다(박정호 2014, 65-66).

모스크바 공국은 키이우 공국과 달리 러시아인이 세운 별개 국가라는 것이다. 이런 역사적 정체성은 결국 우크라이나는 원래 유럽의 일부였고, 러시아는 유라시아에 있는 다른 국가라는 해석에 이르게 된다. 그에 의하면 러시아인과 다른, 이 루테니아인이 형성한 군사정치적 집단이 코자크다(미하일로 호루세브스키, 허승철·한정숙 역 2016).

### ● 코자크(козак, 러시아어 카자크 казак)

서부 에스니에는 민족 정체성을 부각하기 위해 코자크의 활동과 역할에 큰 의미를 부여했다. 호루세우스키에 따르면 루테니아인 코자크는 폴란드 통치와 수탈에서 벗어나기 위해 민족해방 투쟁을 전개해 나갔다. 독립 국가에 이르지지는 못했지만 주변 강대국의 간섭에서 자율성을 확보한 사실상의 자치국가 정치체제였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코자크는 지도자인 헤트만(Гетьман)이 다스렸는데 헤트만은 오늘날 의회적인 라다(Rada)에서 선출됐다. 세습 체제가 아니었다는 점이 주목된다. 코자크는 강력한 정치체제를 갖고 있었던 러시아, 폴란드, 오스만튀르크 등으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할 군사집단을 형성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코자크의 주요 내부 규율은 두가지다. 코자크에 들어 오기 위해서는 새로운 이름을 갖고, 엄격한 규율을 따라야 하며 동방정교를 믿어야 했다(성동기 2004, 290-297).

우크라이나 곳곳에 생겨난 코자크 집단은 공통의 배경을 갖고 태어났다. 주변 강국으로부터의 '수탈'과 이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자위적 항거'가 배경이다. 하지만 수탈의 주체가 달랐다.

서부는 폴란드 귀족으로부터, 동부는 러시아 차르로부터 '수탈' 당했다. 돈 카자크

---

혁명, 러시아 적백군간 내전 등 힘의 공백과 교체가 이뤄졌다. 이 과정에서 동유럽과 발칸에서는 수많은 공화국이 탄생을 선포하고 소멸했다. 우크라이나 인민공화국도 그중 하나다. 짧은 기간 독립의 경험은 서부 에스니에의 정체성을 더욱 강화했다.

집단은 모스크바 공국과 종교 언어, 문화를 공유하는 경향이 강했다. 드네프르 카자크는 폴란드의 착취 속에 정체성을 키워 왔다.

수탈 체계의 공통점과 차이점으로 동부의 돈 카자크는 농업과 러시아 변방을 지키는 전사라는 신분적 성격을 갖는 방향으로 발전했다. 이는 러시아 제국 해체 때까지 이어진다. 러시아 제국은 코자크에게 일부 자치를 허용하면서 군사능력을 높게 평가해 러시아 변방의 국경을 맡겼다. 용병의 성격을 띄고 있었지만 러시아는 형제애를 강조했고 이는 동부 에스니에의 정체성을 구성하게 된다.

중서부 코사크는 이와 성격이 달랐다. 예를 들어 폴란드의 수탈을 피해 온 이들과 그 후손으로 구성된 자포로자(Запорожжя)의 코자크가 그런 사례다. 헤트만이 예속을 선택하기보다 적극적으로 자치성 확보에 나섰다. 주변 국가와 전쟁, 연합 등 좀더 적극적인 정치적 활동에 나선다. 대체적으로 이러한 움직임은 오늘날 우크라이나인들은 국가의 역사적 원형으로 본다(구자정 2017, 10-18).

19세기 서부 에스니에 민족주의자들은 코자크를 동서 공통의 역사적 정체성을 구성하는 요소로 상징화했다. 그런데 하나 흥미로운 것은 서부의 할리치나 지방은 정작 코자크 공동체를 구성한 적이 없다는 것이다. 폴란드 지배의 할리치나에서 탈출해서 결사한 것이 코자크의 일부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코사크의 내부 규율 원리 중에 하나인 동방정교를 서부에서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부에서는 폴란드 귀족과 대지주간의 타협으로 로마카톨릭 산하의 우니아트가 뿌리를 내린다. 중세체계의 정치 원리 중에 하나였던 종교에 있어서 동서 에스니에는 구분되었다(우준모·김종현 2013, 141-162).

### ● 페레야슬라우(Переяслав, 러시아어 페레야슬라프 Переяслав) 조약

서부 에스니에가 역사해석과 정체성에 있어서 러시아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이 페레야슬라우 조약이다. 17세기 카자크의 헤트만 흐멜니츠키(Богдан Зиновій Михайлович Хмельницький)는 폴란드와 전쟁을 치르면서 같은 슬라브족이자 정교회 국가 모스크바공국과 동맹 조약을 체결한다. 1653년 페레야슬라우 조약이다.

이 조약에 대한 의미가 부여가 상이하다. 러시아는 이 조약을 통해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귀속된 것으로 본다. 즉 러시아가 종주권을 갖게 되고 키이우 공국의 정통성을 이어 받아 재통일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해석에 따라 러시아는 대러시아, 우크라이나는 소러시아가 된다.

반면 서부 에스니에 민족주의자들은 당시 우크라이나가 맺었다가 파기한 군사동맹조약 중에 하나일 뿐이라고 평가절하 한다. 즉, 우크라이나는 조약의 결과로 흐멜니츠키가 사실상 코자크 자치국가를 수립했다는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구로카와 유지 저, 안선주

역 2022, 119-131).

17세기 페레야슬라우 조약 이후 우크라이나 영토의 동남부 지역 일대는 러시아 제국의 지배를 받는다. 지속적으로 러시아와 동화 과정을 겪으며 독립적 정체성을 발전시키지 못했다. 결국 종교, 언어 등에 있어서 구별되는 동서부 에스니에가 각각 강화된다.

페레야슬라우 조약 이후 할리치나를 비롯한 우크라이나 서부 지역은 폴란드의 수탈과 갈등 속에서 독자적 민족 자의식을 발전시켜 나간다. 18세기 말 폴란드가 러시아, 오스트리아, 프로이센에 의해 분할되었는데 우크라이나 서부 지역은 오스트리아 제국의 영토가 된다. 서부 에스니에는 오스트리아 제국 통치하에서 유럽의 한 부분이 되어 언어와 교육, 문학에서 자의식을 키운다. 19세기 유럽의 민족주의 세례 속에 자의식을 키운 할리치나는 1917년 우크라이나인민공화국을 수립한다. 동서 우크라이나의 단일성도 강조된다.

이런 가운데 동부에서도 볼셰비키 혁명 중에 오데사 소비에트 공화국, 도네츠크-크리보이 로크 소비에트 공화국 등이 수립되었다. 1920년 동서 우크라이나는 통일을 선언했다. 하지만 선언적 의미에 그치고 곧 다시 서부 할리치나는 폴란드, 동부는 소련의 지배에 들어간다.

### ● 대러시아론과 우크라이나

역설적으로 이렇게 이질적 요소를 갖고 있는 우크라이나 동부 에스니에와 서부 에스니에를 하나의 정체로 묶은 것은 소련이었다.

제2차 세계대전 뒤 할리치나를 편입한 소련은 우크라이나와 민족 간의 우애를 강조한다. 구소련 시절 1953년 니키타 흐루시초프는 페레야슬라우 조약 체결 300주년을 기념에 우크라이나에 선물을 줬다. 바로 크림반도다. 우크라이나인에 대한 우의의 표시로 소비에트 사회주의공화국에서 크림반도를 우크라이나 소비에트 사회주의공화국의 양여한 것이다. 구소련의 러시아는 대러시아론을 내세우며 러시아와 소러시아(우크라이나), 벨라루시아가 하나의 민족임을 강조한다. 이른바 ‘만형론’이다(조정남 1996, 260-263).

대러시아론은 푸틴에 의해 소러시아(우크라이나)와 벨라루시를 러시아의 일부로 여기는 쪽으로 강화되었다. 나토의 동진으로 이런 인식은 국제관계에도 표출됐다. 이런 인식을 보여주는 사례가 있다. 2008년 4월 루마니아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담에서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와 조지아가 나토 회원국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푸틴은 “실존적 위협”이라며 “반드시 저지 하겠다”고 맞섰다. 푸틴은 조지 W. 부시 대통령에게 말했다. “조지, 우크라이나가 나라가 아니라는 걸 알아야 해. 우크라이나 영토의 일부는 동유럽에 있고 더 큰 영토는 우리 것이었어”<sup>13)</sup> 이는 할리치나에 대한 러시아의 인식과 현재

13) 출처: <https://www.nytimes.com/2022/01/24/opinion/russia-ukraine-putin-biden.html> (검색

상황을 반영하고 있을 뿐 아니라 우크라이나 동부 에스니에의 특성을 살필 수 있는 대목이다.

이런 인식의 연장선에서 전쟁 발발전 2021년 푸틴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와의 민족적 관계에 대해 공식 문서를 발표한다. 고대사에서부터 현대의 역사를 되짚으며 우크라이나는 완전히 소비에트의 의해 만들어 진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다. 따라서 현대 우크라이나의 탄생으로 러시아의 일부였던 영토가 강탈당했다고 주장한다(푸틴 2021).<sup>14)</sup>

## 1-2 서부 에스니에 민족주의의 비극: 영웅인가? 악마인가?

19세기 후반 서부 에스니에의 민족적 각성은 정치적 조직으로 발전한다. 그 결과 세계 제1차대전 이후 독립단체가 형성되는데 대표적인 것이 ‘우크라이나 민족주의자 조직 OUN(Organization of Ukrainian Nationalists, 우라이나어 ОУН, Організація українських націоналістів)이다.

동부 에스니에는 1932년 1933년 대기근으로 수백 만 명이 기아로 사망한 홀로도모르(Голодомор)<sup>15)</sup>를 겪는다. 스탈린의 무리한 집단농장 추진 때문이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동부에서도 민족적 각성이 강화했다. ‘수탈’의 의한 민족주의를 소환한 것이다. 반소 감정이 높아진 가운데 2차 세계대전 당시 서부 에스니에 민족주의자들은 OUN 산하에 반소 무장독립 단체 활동을 진행했다. 우크라이나 저항군 UIA(Ukrainian Insurgent Army, 우크라이나어 УПА, Українська повстанська армія)은 게릴라 투쟁을 통해 반소, 반스탈린 독립투쟁을 이끌었다.

독소 전쟁 발발 당시 우크라이나 민족주의자들은 독일을 폴란드와 소련 세력으로부터 구해줄 해방군으로 여겼다. 그들은 자생적 파시즘 성격을 띄고 있었다(구자정 2015, 2-6). 나치의 침략을 환영하고 일부는 그 전위대가 되어 소련과의 전투에 참여하기도 했다. 나치가 소련과의 전투를 위해 병력을 보충했을 때는 8만 명 이상의 우크라이나인이 자원했다. 독일군은 이렇게 만들어진 사단을 제14 나치 무장친위대 전투사단 ‘갈리치나 (Galizien)’으로 명명했다(구자정 2015, 9-11; Wylegala Anna 2017, 780-797).

---

일: 2022. 06. 25.).

14) Статья Владимира Путина 2021. 06. 12. «Об историческом единстве русских и украинцев» 영문으로도 볼 수 있다. Vladimir Putin “On the Historical Unity of Russians and Ukrainians” <http://kremlin.ru/catalog/countries/UA/events/66181> 고대사에서부터 최근 우크라이나와의 관계까지, 양국 관계에 대해 이례적으로 통치권자가 문서와 tv 대담을 통해 공식입장을 밝힌 것으로 사실상 전쟁 명분을 국내외에 알린 것으로 해석된다.

15) 기아 죽음이라는 의미로 사망자를 최소 100만 명에서 많게는 1500만명까지 추정하는데 대략 약 300만 명이 사망했다고 본다. 우크라이나에서는 이 대기근이 볼셰비키 지도자들의 인종 학살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소련의 전위대 역시 상당수가 중부, 동부 우크라이나인으로 구성되었다. 결국 제2차 세계대전에서 동부와 서부 우크라이나인들은 각각 나치의 전투사단과 붉은 군대로서 전투에 나섰다. 두 에스니에가 맞붙은 대표적인 전투가 1944년 6월 브로디 전투다.<sup>16)</sup> 현재의 관점에서 보면 동족상잔의 비극이었다.

일부 서부 중심 우크라이나 민족주의자들은 포그롬, 유태인 학살에 앞장서기도 했다. 당시 우크라이나와 벨로루시는 대표적인 유태인 거주 국가였다. 우크라이나에서 사망한 민간인이 140만명~210만명으로 추산되는데 이중 약 20%내외가 유태인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들은 또 독립을 명분으로 폴란드인에 대한 인종학살에도 나섰다. 할리치나와 볼린(Boлинь, Volhynia) 등 우크라이나 서부에서 12만 명 이상의 폴란드인들을 학살했다. 연령과 성별의 구분도 없었다. 서부 에스니에 중심의 우크라이나 무장 조직은 "폴란드인들에게 죽음을, 모스크바-유대 공산주의에게 죽음을"이라는 가사의 군가를 부르며 이같은 일을 저질렀다(김용덕 2010, 24-34).<sup>17)</sup>

비극은 냉전시대에도 이어졌다. 나치 독일 패망 이후 서부의 극단적 민족주의자들은 반소 게릴라 투쟁과 첩보전을 나섰다. 1956년에야 소련 지역에서 UPA의 마지막 부대가 소탕됐다. UPA에게는 우호 세력의 지원이 있었다. 소련과 대결하던 미국과 영국이다. OUN 조직원의 상당수는 친나치 전위대에서 반공투사로 변신한다(Bartov Omer 2007).

대표적인 인물이 할리치나 출신의 스테판 안드리요비치 반데라(Степан Андрійович Бандера)이다. 우크라이나의 독립운동가이자 나치협조자다. 그는 1929년 리비우를 중심으로 우크라이나 민족주의자 조직(OUN)을 주도했고, 이를 무장조직으로 정비해 나치의 반소련 정책에 동조했다. OUN은 소련의 니콜라이 바투틴 대장을 암살했고 폴란드인 유태인 학살에도 참여했다. 제2차 세계대전 종전 후에는 미국 CIA의 지원을 받아 반소 투쟁을 주도했다. 냉전초기 반데라의 OUN은 요원들을 침투시켜 소련 내에서 첩보 작전을 전개했다.

반데라는 구소련 시절에는 반소투쟁 활동으로 나치부역자로 평가되었다. 러시아는 파시즘 옹호자이자 민간인 학살 등을 주도한 전쟁범죄자로 평가하고 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독립이후 서부 에스니에를 중심으로 그는 우크라이나 독립 투쟁의 상징이 되었다(Marples 2006, 55-66). 우크라이나 현실정치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다.

---

16) 나치의 소련 침공 작전, 바르바로사 작전의 초기 전투로 브로디 전투 또는 두브나 전투 등으로 불린다. 1941년 6월 23일부터 30일까지 독일 1 기갑군단, 3 군단, 68 기계화군단이 소련 5 군단, 제 6군단과 벌인 전투로 나치가 승리했지만 큰 피해를 봤다.

17) 볼히니아(볼린) 학살 사건은 폴란드와 우크라이나가 풀지 못하고 현재에도 갈등하고 있는 '과거사' 문제이다.

2010년 서부 에스니에를 대표한 빅토르 유셴코 대통령이 반데라에게 우크라이나 영웅훈장을 수여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동부 에스니에 중심으로 논란이 커졌다. 동부 에스니에를 대표하는 빅토르 야누코비치 대통령은 훈장 수여 결정을 무효 처리 했다(Yurchuk Yuliya 2017,107-137).

2014년 유로마이단(Euromaidan, 에우로마이단 Євромайдан) 혁명 이후 또 상황이 바뀐다. 서부 에스니에의 지지를 받고 있던 포로셴코 정부는 2018년 12월 영웅 칭호를 내리기로 했다. 서부 에스니에의 지지를 받았지만 자신이 유태인인 젤렌스키 대통령은 반데라의 독립 투쟁은 인정하면서도 2019년 8월에 반데라에게 영웅 칭호를 주는 것을 거부했다.

푸틴은 이같은 과거사의 맥락속에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을 만나치 전쟁으로 선언한 것이다. 푸틴은 2021년 우크라이나 서부 에스니에가 주장하는 우크라이나 민족은 폴란드인에 의해 만들어진 혼합물이라고 밝힌다. 반데라는 나치 부역자 일뿐인데 우크라이나에서 영웅화되고 있다며 우크라이나의 현실을 개탄한다.<sup>18)</sup>

역사는 현재에 의해서 끊임없이 재해석 된다는 점에서 반데라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우크라이나 민족주의의 과거는 향후 우크라이나 동서 에스니에의 통합과 민족형성에 있어 풀어야할 과제로 꼽힌다.

## 2. 정치적 차원 - 권력 공유에서 서부 에스니에 중심으로

독립 이후 민족국가를 형성함에 있어 우크라이나는 동부 에스니에와 서부 에스니에가 권력을 공유하며 정권을 교체해 왔다. <표 1>에서와 같이 한쪽 에스니에를 대표하는 대통령이 선출되면 대통령은 다른 에스니에를 대표하는 총리를 기용하는 형태였다.

<표 1> 2014년 이전 우크라이나 역대 대통령 주요 총리

	대통령	지지 에스니에	주요총리	지지 에스니에
1991~1994	크라프추프	서부	쿠츠마	동부
1994~2005	쿠츠마	동부	유셴코/ 야누코비치	서부/ 동부
2005~2010	유셴코	서부	티모셴코/야누코비치	서부/ 동부
2010~2014	야누코비치	동부	아자로프	동부

18) Статья Владимира Путина 2021. 06. 12. «Об историческом единстве русских и украинцев» 영문으로도 볼 수 있다. 출처: <http://kremlin.ru/catalog/countries/UA/events/66181>

하지만 동서 에스니에 간 불안한 국가 권력 공유는 2014년 이후 서부 에스니에 주도로 변화한다. 가장 큰 요인은 유로마이단과 러시아의 크림 반도 점령이다. 친유럽 서부 에스니에 주도의 유로마이단 시위는 동부 에스니에를 자극했다. 그러자 동부 에스니에의 도네츠크 인민공화국, 루간스크 인민공화국이 2014년 독립을 선언했다. 여기에서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점령하자 동부 에스니에의 정체성이 변화했다.

동부 에스니에의 핵심 지역인 도네츠크와 루간스크, 크림반도가 우크라이나 현실 정치에서 배제됐기 때문에<sup>19)</sup> 역설적으로 우크라이나 동서부 에스니에 사이의 권력구조가 변하는 결과를 낳는다. 크림, 도네츠크, 루간스크 등을 제외한 동부 에스니에 지역에서도 러시아에 대한 반감이 커졌다.

주도권을 쥔 서부 에스니에는 내적으로 야누코비치 시절 동부지역 지방정부에서 일었던 러시아어의 공용어 지정 등의 움직임에 제동을 걸고 2019년에는 우크라이나어가 유일 공용어임을 확인했다. 외적으로 친유럽, 탈러시아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했다. 2014년 전후를 기점으로 우크라이나는 동서부 에스니에의 균형에서 서부 에스니에 중심으로 민족(Nation)을 만들어 가고 있다.

구체적 조사결과를 통해 2014년 전후의 변화를 살펴보고 그 성격을 짚어 본다. A. 스미스는 에스니에가 민족화 하는 모델로 종족-계보적 유형(ethnic-genealogical model)과 시민 영토적 유형(civic-territorial model)을 제시했다(엄구호 2011, 167-168). ‘시민권’은 에스니에의 민족 형성에 있어 중심적 요소다(A. 스미스, 이재석 역, 2018, 345-346). 시민권을 중심으로 2014년 이후 우크라이나 민족 형성의 방향도 살펴본다. 이는 향후 우크라이나의 미래 전망에도 유용할 수 있다.

## 2-1 동서의 권력 공유 시기 - 2014년 이전

〈표 2〉에서와 같이 1991년 독립 찬성하는 여론이 동서부 에스니에 양쪽에서 모두 압도적이었다. 우크라이나인 90.32%가 독립에 찬성했다. 다만 남부 크림주는 독립 찬성이 34.19%에 그쳤다.

하지만 동서간 독립 요구의 성격에 차이가 있었다. 서부지역에서 인구에서 러시아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5%에 불과했다. 페레스트로이카 이후 우크라이나 독립운동이 활발하게 진행됐다. 이는 19세기 유럽의 발흥했던 민족주의가, 잠재 되어 있다가 다시 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러시아와 다른 독립적 민족국가 성립이 목표였다(김경순 2004).<sup>20)</sup>

19) 도네츠크인민공화국(약 200만명), 루간스크인민공화국(약 150만명) 크림공화국(약 196만명) 세바스토폴시(약 42만명)으로 약 588만명의 동부 에스니에 지역이 우크라이나나 정치제제와는 달리 운영되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체인구(약 4,150명)의 15%에 가깝다.

반면 인구의 20% 이상이 러시아인이었던 동부의 경우, 탈소련 움직임이 민족주의에 의해 추동되기 보다는 구소련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 무능함에 대한 항거 성격이 짙었다. 즉, 시장경제로의 이행이 민주화와 독립을 향한 요구로 이어졌다. 러시아화 정도가 강했던 돈바스 지역의 광부들의 시위와 우크라이나의 법적 주권 확립 요구가 그러한 예이다(박태성 2007).

〈표 2〉 1991년 주요 지역 독립 찬성 투표 비율<sup>21)</sup>

동부	남부	중부	서부	남서부
도네츠크 83.9%	크림 34.19%	키예프 95.52%	리비우 97.46%	체르니프치
루간스크 83.86%	오데사 85.38%	폴타바 94.93%	볼린 96.32%	92.78%

하지만 1994년 대선이후 동부와 서부 에스니에는 정치적 정체성의 대결을 본격화한다. 현직 대통령이었던 크라우츠크(Леонід Макарович Кравчук, 러시아어 크라프츠크 Леонид Макарович Кравчук)는 과거 친러 세력과 대립각으로 집권했으나 경제가 발목을 잡았다. 전총리 쿠츠마(Леонід Кучма)는 경제난 타개를 위해 러시아와 관계 개선을 내걸었다. 또 명시적으로 우크라이나는 유러시아의 일부라는 러시아의 주장에 동조하며 동부지역 표심을 자극했다. 주목할 만한 것은 리비우를 중심으로한 서부에서 크라우츠크는 87.4%나 득표했음에도 전체 서부지역 득표율이 54.1%에 그쳤다는 점이다. 서부 에스니에 민족주의 세력이 패배했다.

〈표 3〉 1994년 우크라이나 대선 주요지역별 득표율<sup>22)</sup>

	쿠츠마	크라우츠크
동부지역	65.9%(동부 75.6%)	
키이우		59.7%
서부지역		54.1%(서부 87.4%)
합계	52.1%	45.1%

20) 초기 우크라이나 체제 이행과 국가 형성과정에서도 동서간 통합은 국민통합의 관점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로 꼽혔다.

21) 우크라이나 민족과 민족주의의 진로. 러시아 지역연구 내용을 변형한 것임(우준모 1997, 86).

22) 우크라이나 동서 지역갈등과 주변국가의 역학구조. 슬라브연구23(2). 지역분류를 셋으로 할 경우 동부지역, 서부지역과 키이우로 분류했고, 괄호 안의 동부, 서부는 5개 지역구분시 분류를 따른 것임(박태성 2007, 63).

동서 에스니에간 정치적 정체성의 대결은 2004년 오렌지 혁명으로 극화된다. 재선거까지 치른 양자 대결에서 경제 악화, 대외 문제, 쿠츠마의 독선과 부패 등이 이슈가 되었으나 그 모든 것이 결국 동서 대결로 귀결되었다. 1994년 선거와 비교할 때 대결이 더 심화되었고 리비우 중심의 서부 에스니에의 결집력이 서부지역 전체로 확산된 것을 알 수 있다. <표 4>에서와 같이 1994년 서부 에스니에를 대표하는 크라우츠크는 54.1%를 득표했는데 2004년 유센코(Віктор Ющенко)는 69.79%를 득표했다. 1994년 동부 에스니에를 대표하는 쿠츠마는 동부지역에서 65.9% 득표했는데 2004년 야누코비치(Віктор Янукович)는 72.02%를 얻었다. 유센코는 리비우에서 94%, 야누코비치 도네츠크에서 94%를 각각 득표했다.

<표 4> 2004년 대선 결선 투표<sup>23)</sup>

	유센코	야누코비치
동부지역		72.02%(동부 78.51%) *도네츠크 94%, 크림 81%
키이우	80.54%	
서부지역	69.79%(서부 85.83%) *리비우 94%	
합계	51.99%	42.20%

서부 에스니에는 집권에 성공했지만 유센코와 티모셴코(Юлія Володимирівна Тимошенко), 포로셴코 간의 내부 분열이 이어지고 경제 정책에 실패한다. 여기에 세계금융위기까지 겹쳐 러시아가 현실적인 지원세력으로 부각하면서 결국 2010년 야누코비치는 티모셴코를 결선 투표에서 48.9%대 45.4%로 누르고 집권에 성공한다.

야누코비치의 집권은 서부 에스니에 정치엘리트에 대한 탄압으로 이어졌다. 티모셴코 등이 투옥되었다. 야누코비치는 EU협력협정에 서명하지 않았다. 여기에 경제난에 IMF의 지원까지 끊긴데다 부패 스캔들이 잇따라 터지면서 어렵게 집권한 친러 동부 에스니에의 정권은 아래로부터의 저항에 부딪힌다. EU와의 협정 거부로 유로마이단 시위가 격화되고 결국 야누코비치는 탄핵되고 러시아로 도피하기에 이른다. 야누코비치의 실정과 유로마이단으로 서부 에스니에 정권이 다시 탄생했지만 동부의 도네츠크

23) 박태성(2008, 68)의 표를 단순화하여 변형한 것임.

크, 루간스크인민공화국이 독립을 선언하고 내전 상태에 들어 갔다. 이에 더해 러시아는 크림을 침공, 병합했다.

이는 결과적으로 동부 에스니에의 핵심 지역이 우크라이나 현실 정치에 참여하지 못하는 결과를 낳는다. 이에 따라 서부 에스니에를 중심으로 하는 포로셴코(Петро Порошенко), 젤렌스키(Володимир Зеленський)가 집권한다. 결국 2014년 이후 서부 에스니에 중심으로 민족형성이 가속화된다. 도네츠크, 루간스크 인민공화국의 독립과 내전, 러시아의 크림 무력 병합은 이들 지역을 제외한 동부에서도 러시아에 대한 감정을 악화시키고 동부 에스니에의 정체성을 변화시킨다.

## 2-2 서부 에스니에의 권력 강화와 시민권 - 2014년 이후

2014년 이후 서부 에스니에를 중심으로 한 민족 형성 강화는 단순히 정치권력에서만 나타나지 않는다. 에스니에의 정체성 변화도 엿볼 수 있다. 특히 동부 에스니에의 정체성 변화가 주목된다.

〈표 5〉 지역별 전통과 관습에 따른 친밀도<sup>24)</sup>

	서부	중부	남부	동부
키이우	6.7→ 6.6	8.5→ 8.2	7.3→ 7.8	7.4→ 6.9
할리치나	8.6→ 8.1	6.2→ 5.6	4.3→ 4.7	4.4→ 5.1
크림	4.7→ 4.6	6.9→ 4.9	7.9→ 7.5	7.8→ 7.1
돈바스	4.4→ 4.0	6.9→ 4.3	7.4→ 7.2	<b>9.0→ 7.4</b>
러시아	3.7→ 1.5	6.4→ 3.0	7.3→ 5.2	8.4→ 5.7

\* 0~10. 10이 최대 호감도를 의미

\*\* 남부는 러시아의 점령으로 2016년, 2021년 모두 크림지역을 제외하였음.

\*\*\* 2006년 조사결과 → 2021년 조사결과

24) 라쭌코프센터(Razumkov Center, Центр Разумкова), 2021, Ukraine: 30 Years ON The European Path, 139. <https://razumkov.org.ua> 라쭌코프센터는 우크라이나 대표적 사회조사기관이다. 독립이후 30년간 우크라이나의 경제, 사회 정치, 외교 등 각 분야에 대한 변화에 방대한 보고서를 내놓았는데 30년간 사회적 변화를 통해 구소련체제에서 유럽 민주주의 체제로 변신중이라고 진단한다. 인용한 조사결과는 2006년 5월과 2021년 6월에 실시된 것을 비교한 것이다. 해당 여론조사는 30년은 물론 2014년을 기점으로 7년 전후의 변화상을 가늠할 수 있는 데이터다. 이 조사는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의 후원으로 이뤄진 조사 결과물이다.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은 독일기민당의 정당 재단으로 유대인에 대한 사과와 보상, 프랑스와의 화해를 이끌었던 아데나워 전수상의 업적을 기려 창립되었다.

전통과 관습은 에스니에를 구성하는 주요 요소이다. 그런데 라줌코프센터의 2006년과 2021년 전통과 관습에 대한 지역별 친밀도 조사에서 큰 변화가 있었다. <표 5>에서와 같이 동부 에스니에의 경우, 서부의 할리치나 에 대한 친밀감이 4.4에서 5.1로 소폭 높아졌다. 반면 독립을 선언한 도네츠크, 루간스크 인민 공화국이 있는 동부 돈바스에 대한 친밀도는 9.0에서 7.4로 대폭 낮아졌다. 여기에는 2014년 러시아의 크림 점령과 이후 충돌이 동부 에스니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된다. 동부 에스니에의 러시아에 대한 친밀도 역시 8.4에서 5.7로 대폭 낮아졌다.

2014년 이전 동서 에스니에의 권력 교체와 공유를 주도했던 중부도 크게 변했다. 중부의 크림, 돈바스, 러시아에 대한 호감도가 큰 폭으로 낮아 졌다.

이 조사에서 우크라이나 전체의 러시아에 대한 친밀도는 6.8에서 3.5로 대폭 낮아 졌다. 2021년 조사결과 러시아의 호감도 10점 만점의 3.5는 벨라루스(6.0→4.6), 폴란드(3.7→4.4)슬로바키아(3.2→4.1) 몰다비아 (3.0→3.8) 헝가리(2.8→3.7)보다 낮은 수치이다.

동부 에스니에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주요 요소는 러시아와 같은 종교와 언어이다. 그런데 2014년 이후 급격하게 변화가 있음을 다음표를 통해 알 수 있다.

<표 6> 문화적 전통과 연관성(%)<sup>25)</sup>

	2006년5월	2013년12월	2015년3월	2017년12월	2021년6월
우크라이나	56.3	67.7	65.5	68.9	72.9
범유럽	6.6	7.5	10.0	13.1	9.8
소비에트	16.4	12.5	13.8	9.9	9.8
러시아	11.3	6.2	4.2	2.0	3.3
기타	1.5	1.7	2.2	0.9	0.8
응답 어려움	7.9	4.4	4.2	5.1	3.4

<표 6>에서와 같이 문화적 전통이 소비에트와 러시아와 연관 있다고 생각하는 응답이 2006년 5월에는 27.7%(소비에트 16.4%, 러시아 11.3%)였다. 하지만 야누코비치 대통령의 EU협정 연기로 발흥한 2013년 11월 유로마이단 시위이후 대폭 낮아진다. 소비에트와 러시아라고 답한 비중은 2015년 18%로 낮아지고 이후에도 러시아와 충돌과 갈등이 점증되자 2021년에는 13.1%로 다시 낮아진다. 15년 사이에 소비에트, 러시아와 문화적 전통이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우크라이나인이 절반으로 줄어 든 것이다.

25) 라줌코프센터(Razumkov Center, Центр Разумкова). 2021. 출처: <https://razumkov.org.ua>

이와 대비되게 우크라이나 문화적 전통에 대한 정체성은 강화됐다. 즉, 문화적 전통이 러시아, 소비에트와 관련이 있다는 정체성을 크게 낮아졌지만 우크라이나와 관련이 있다는 응답은 2006년 56.3%에서 2021년 72.9%로 높아졌다. 문화적 차원에 있어서도 서부 에스니에의 정체성이 강화, 확산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에스니에의 구성요소인 언어에서도 큰 변화가 있다. 읽고 싶은 외국서적이 번역될 경우 우크라이나어와 러시아어, 어느쪽 번역을 선호하겠느냐는 질문에 둘다 상관없다는 대답이 2006년 28.3%에서 2021년 34.5%로 늘었다. 주목되는 것은 우크라이나어만을 선호하는 응답이 28.7%에서 32.0%로 늘어난 반면, 러시아어만을 택한 이는 2006년 36.8%에서 16.5%로 대폭 감소했다는 점이다.<sup>26)</sup> 이는 동부 에스니에의 정체성 변화를 의미한다.

우크라이나가 어느 쪽과 통합 경로를 택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2002년에는 러시아가 31.6%, EU 31.4%로 거의 같았다. 경제난이 가중된 2009년에는 러시아라는 응답이 52.5%로 EU 23.8%를 압도했다. 경제난과 러시아의 경제적 지원에 대한 기대감 속에 동부 에스니에가 결집, 강화되면서 2010년 야누코비치가 집권할 수 있었다.

하지만 2014년 유로마이단, 러시아의 크림 점령 등으로 상황은 극적으로 변한다. 러시아를 택한 응답이 17.6%로 추락하고 EU라고 답한 우크라이나인이 57.6%로 늘어난다. 2021년 조사에서 EU는 51.5%로 큰 변화 없지만 러시아라고 답한 이는 9.6%, 한자리수로 내려 앉는다.<sup>27)</sup> 15년 사이에 우크라이나는 미래 선택지 항목에서 사실상 러시아를 지우고 있는 셈이다. 여러 연구에서 2014년 유로마이단, 러시아의 크림 점령 전후로 우크라이나 국민 정체성이 강화되었다는 것이 공통적으로 나타난다(Grigore Pop-Eleches 외 2018, 107-118)<sup>28)</sup>

결국 2014년 전후 약 15년간 우크라이나 현실정치에서 동부에스니에의 정치적 기반이 약화되고 에스니에의 정체성 역시 변화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러시아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것이다. <sup>29)</sup>

---

26) 출처: <https://razumkov.org.ua>

27) 출처: <https://razumkov.org.ua>

28) 예를 들어 Grigore Pop-Eleches & Graeme B. Robertson은 2012년 라줌코프 데이터와 2015년 조사를 통해 정치적 선호(EU지지, 러시아지지)와 인종정체성, 사용언어, 시민정체성과의 상관성을 조사했는데 우크라이나 국민으로서의 정체성이 강화되었고, 정치적 선호와 가장 상관관계가 높은 변수는 사용언어로 나타났다.

29) 이를 Kulyk(2016, 588-608)은 유로마이단과 러시아의 침공 이후 우크라이나 민족정체성의 러시아성 벗어나기(shedding of Russianness)라고 명명한다. 스스로를 우크라이나 민족이라고 생각하는 이들의 비율이 늘었는데, 주목할 만한 것은 인종적으로 러시아인이면서도 우크라이나 민족이라고 답하는 정체성이 크게 높아졌다고 지적한다.

그렇다면 서부 에스니에 중심으로 우크라이나 민족(Nation)을 형성할 수 있을까? A. 스미스는 서로 다른 에스니에가 하나의 민족(Nation)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공통된 분업, 혈연보다 영토에 기반한 구성원의 평등한 법적 권리 즉 시민적 권리가 있어야 한다고 보았다. 이 과정에서 새로운 정치문화가 필요한데 지배적 에스니에가 다른 에스니에를 포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120개 소수인종으로 이뤄진 우크라이나는 헌법적으로 영토적 시민권을 보장하고 있다. 이와함께 중요한 것은 개인의 정체성으로 내화되느냐다. 아래 표로부터 우크라이나의 영토 시민적 변화의 방향을 엿볼 수 있다. 지난 15년간 누가 우크라이나 민족(Nation)인가에 대한 인식 변화를 알 수 있는 조사결과이다.

〈표 7〉 우크라이나 민족(Nation)에 대한 정의(%)<sup>30)</sup>

	2006년5월	2015년12월	2021년6월
1. 인종, 언어, 전통과 상관없이 모든 우크라이나 시민(all of citizens of Ukraine)	43.1	55.7	51.3
2. 종과 상관없지만 우크라이나어와 전통을 따른 우크라이나 시민	15.1	17.0	18.3
3. 종족(ethnic) 우크라이나인, 조상이 우크라이나 인인 우크라이나 시민	19.8	11.2	14.8
4. 시민권과 상관없이 인종적 우크라이나인	14.2	7.7	9.7
응답 어려움	7.8	8.3	5.8

〈표 7〉에서와 같이 문항의 1번과 2번은 영토적 시민에 기반한 민족이라는 응답으로 볼 수 있다. 1,2번은 2006년 58.2%로 3번 4번 혈연적 개념 34%보다 높다. 2014년 러시아의 크림 점령 이후인 2015년 조사에서는 1,2번의 합은 72.7%로 거의 20% 가까이 상승한다. 반면 3,4번 응답은 18.9%로 약 15%이상 낮아졌다. 이런 흐름은 2021년까지 이어졌는데, 2022년 2월 러시아의 침공 이후 조사가 이뤄진다면 영토적 시민권 개념의 민족(Nation) 응답 비율이 더 높아졌을 것으로 유추된다.

2014년 유로마이단 시위와 러시아의 크림 침공은 우크라이나인 동서 에스니에 역학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 독립 이후 동서 에스니에 권력 공유 구조가 깨졌을 뿐 아니라 동서 에스니에의 정체성에도 영향을 미쳤다. 서부 중심으로 에스니에가 민족(Nation)을

30) 출처: <https://razumkov.org.ua>

형성하고 있는 과정에 있다. 러시아와의 군사적 충돌 속에 동서 에스니에는 영토 시민적 기반의 민족(Nation)을 형성해 가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 Ⅲ. 결론

우크라이나 동서 갈등에 대해 서구 시각은 매우 단순하다. 친서방 성향의 우크라이나 서쪽과 친러시아 성향의 우크라이나 동쪽을 고식화하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이런 인식의 바탕위에 우크라이나 동서 갈등으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동부 지배는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전망마저 나오고 있다.

하지만 설령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동부를 점령, 지배하더라도 우크라이나 민족문제는 해결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일시적 봉합이지 해소가 될 수 없다. 동부 우크라이나가 서부와 차별적 성격을 갖고 있지만 그렇다고 우크라이나 동부가 과거처럼 러시아와 강한 유대감을 갖고 동화 될 지는 미지수다.

2014년 이후 러시아와의 대결로 우크라이나 동서의 간극이 좁혀지고 있고 동부에서는 과거와 다른 정체성이 형성되고 있기 때문이다. 우크라이나의 국민 정체성은 역사 문화적 차원, 정치적 차원에서 2014년 이전과 이후는 확연히 구별된다.

이를 A. 스미스의 에스니에 개념을 통해 분석했다. 서유럽 근대국가와 다른 경로를 걸어 온 우크라이나에 적용할 때 적실성이 있다고 볼 수 있었다.

역사 문화적 차원, 정치적 차원에서 볼 때 우크라이나의 동서 에스니에는 주변 강대국의 약탈과 착취 속에 민족의식을 키워갔고 이를 주도한 것은 19세기 서부 에스니에였다. 우크라이나는 현실적으로 소련에 의해 국가(state)가 성립했고 소련의 해체와 독립으로 민족(nation)을 형성해 가고 있다.

정치적 차원에서 독립후 2014년까지 동서 에스니에는 권력을 교체, 공유해 왔지만 2014년 이후는 서부 에스니에가 주도하고 있다. 국가를 구성하는 영토 측면에서 동부 에스니에의 도네츠크 인민공화국, 루간스크 인민공화국, 크림공화국 등의 독립은 현실 정치에서 서부 에스니에의 권력을 강화했다. 여기에 러시아의 직접 개입 등은 동부 에스니에의 정체성 또한 변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2022년 러시아와 전면전 이후 더 강화되었을 것으로 추론 된다. 서부 에스니에 중심으로 우크라이나의 민족이 형성되고 있는 것이다. 외부 요인, 러시아의 직접 개입으로 동부 에스니에의 정치적 입지는 줄어드는 역설을 낳았다. 러시아의 분리에 의한 우크라이나 민족의 재통합이 이뤄지고 있다고도 볼 수 있다(이선우 2015)

하지만 아직 서부 에스니에 중심으로 우크라이나 민족(nation)의 형성을 단정할 수는 없다. A. 스미스가 지적한 동원과 포용의 측면에서 볼 때, 현재 우크라이나 민족(nation) 형성은 외부, 러시아의 침략에 의한 동원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이다. 포용의 민족 형성은 아직 과제로 남았다고 볼 수 있다. 러시아와의 전쟁 이후 동부 에스니에 대한 사회, 정치적 강압적 동화나 강압이 진행 경우, 민족 형성은커녕 다시 분화를 맞을 수도 있다.

2014년 이후 우크라이나 민족주의는 인종적 요소보다는 영토 시민적 민족주의가 강화되고 있지만 제2차 세계대전의 '기억'은 극복해야할 과제다. 홀로코스트 등의 기억은 우크라이나 민족주의가 해결해야 할 과거이자 미래다. 이는 단순히 우크라이나 동서만의 문제가 아니다. 우크라이나 민족의 국제 관계, 특히 러시아, 폴란드 등과 '과거사'를 둘러싼 갈등을 낳을 수 있다. 지정학적 특성상 이는 다시 우크라이나 내부 갈등으로 이어 질 수도 있다.



- 강진웅. 2021. 민족주의의 근대론적 성찰 - 정치와 경제의 근대적 역동성. 민족연구. 77. 123-135.
- 구로카와 유지 저. 안선주 역. 2022. 유럽 최후의 대국, 우크라이나의 역사. 글항아리. 119-131.
- 구자정. 2017. 16세기 말 17세기 초 자포로지예 카자크 집단을 통해 본 우크라이나 역사의 카자크적 기원과 루스(Rus') 정체성. 슬라브 연구. 33(4). 10-18.
- 구자정. 2015. 악마와의 계약? 우크라이나 파시즘 운동 1929~1945. 슬라브연구. 31(4). 7-11. 49-51.
- 김정순. 1998. 우크라이나의 국가형성과 정치변화. 슬라브학보 13(2). 147-161
- 김정순. 2004. 탈소 우크라이나의 체제이행 특성과 전망. 중소기업. 101. 125-129, 131-142.
- 김정순. 2017. 러시아의 공세적 대외안보정책과 함의. 민족연구. 70. 96-110
- 김용덕. 2010. 폴란드-우크라이나의 과거사 문제 연구 : 보위인 학살 사건을 중심으로. 아태연구. 17(1). 24-34.
- 김지욱. 2013. 민족과 민족주의에 대한 역사학적 접근방식 - 족류-상징주의(Ethno-symbolism)를 중심으로 -. 숭실사학. 31. 357-370.
- 문명식. 2001. 우크라이나의 민족문제와 러시아. 슬라브연구. 17(2). 1-3.
- 미하일로 흐루셰브스키, 허승철·한정숙 역. 2016. 우크라이나의 역사 1,2 한국연구재단 총서
- 박동천. 2008. 민족의 실체성에 관한 철학적 검토. 한국정치학회보. 42(3). 38-40.
- 박정호. 2014. 우크라이나 민족주의 집단의 정치적 위상에 대한 연구. 유라시아연구. 11(4). 65-66.
- 박태성. 2007. 우크라이나 동서 지역갈등과 주변국가의 역학구조. 슬라브연구. 23(2). 51-59, 61-62.
- 성동기. 2004. 우크라이나 코사크의 초기 형성과정과 정체성. 러시아어문학연구논집. 15. 290-297.
- 성동기, 허승철. 2018. 타라스 셰브첸코 : 생애와 문학 - 우크라이나의 민족 시인. 문예림

- 엄구호. 2011. 중앙아시아 국가의 탈소비에트 국민정체성. *중소연구*. 35(1) 173-176, 167-168
- 우준모. 1997. 우크라이나 민족과 민족주의의 진로. *러시아 지역연구*. 1. 77-79
- 우준모·김종현. 2013. 우크라이나와 벨라루스의 민족주의와 국가형성과정 비교고찰. *국제지역연구* 17(1). 141~162.
- 이선우. 2015. 유라시아의 지정학, 민족 균열, 그리고 재민주화: 우크라이나와 벨라루스 사례 비교. *한국과 국제정치*. 31(3). 99-101.
- 조정남. 러시아 민족주의 연구. 1996. 고려대학교출판부. 129-143. 260-263.
- 찰스 킬리. 지봉근 역. 2018. 유럽 국민국가의 계보. 그린비.
- 허승철. 2009. 우크라이나의 이중 언어 상황과 언어의 정치학. *러시아어문학연구논집*. 30. 317-318
- 한정숙. 2014. 역사서술로 우크라이나 민족을 만들어내다: 흐루셰프스키의 우크라이나 역사와 우크라이나 정체성. *러시아연구*. 24(2). 388-394, 395-396.
- 홍태영. 2011. 유럽의 시민권, 정체성 그리고 문화적 인종주의: 국민국가의 전환과 극우 민족주의. *한국정치연구*. 한국정치연구. 20(2). 237-242.
- A. 스미스. 이재석 역. 2018. 민족의 인종적 기원. 그린비. 10. 340-350.
- Bartov, Omer. 2007. *Erased. Vanishing Traces of Jewish Galicia in Present-Day Ukraine*.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Grigore Pop-Eleches & Graeme B. Robertson. 2018. Identity and political preferences in Ukraine - before and after the Euromaidan. *Post-Soviet Affairs*. 34(2-3). 107-118.
- Kulyk, Volodymyr 2016. National Identity in Ukraine: Impact of Euromaidan and the War. *Europe-Asia Studies*. 68(4). 588-608
- Marples, David R. 2006. Stepan Bandera: The Resurrection of a Ukrainian National Hero. *Europe-Asia Studies*. 58(4). 555-66.
- Timm Beichelt. 2004. Autocracy and democracy in Belarus, Russia and Ukraine. *Democratization*. 11(5) 123-126
- Wylegala Anna. 2017. Managing the difficult past: Ukrainian collective memory and public debates on history. *Nationalities Papers*. 45(5) 780-797.
- Yurchuk Yuliya. 2017. Reclaiming the past, confronting the past: OUN-UPA

memory politics and nation building in Ukraine (1991-2016). War and memory in Russia, Ukraine and Belarus. Palgrave Macmillan, 107-137.

- KBS. 2022.02.25. 푸틴“탈나치화추진”...젤렌스키“홀로 남겨져 싸우는중” 출처: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404292&ref=A> (검색일: 2022. 06. 15.).
- 한국일보. 2022.02.25. 우크라이나 전방위 급습한 푸틴, 우크라이나의 괴뢰국화'노리나' 출처: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2022511320004659>(검색일: 2022. 06. 05.).
- 연합뉴스. 2022.03.03. 러 외무장관 "3차대전은 파멸적인 핵전쟁 될 것" 출처: <https://www.yna.co.kr/view/AKR20220302194652080> (검색일: 2022. 06. 01.).
- 뉴욕타임스 <https://www.nytimes.com/2022/01/24/opinion/russia-ukraine-putin-biden.html> (검색일 2022. 06. 25.).
- 라쭌코프센터(Razumkov Center, Центр Разумкова). 2021. Ukraine: 30 Years ON The European Path. <https://razumkov.org.ua> (검색일 2022. 06. 10.).
- 러시아 대통령실 <http://kremlin.ru/catalog/countries/UA/events/66181>— Стаття Владимира Путина 2021. 06. 12. «Об историческом единстве русских и украинцев»
  
- KBS
- 한국일보
- 연합뉴스
- 뉴욕타임스
- 라쭌코프센터 (Razumkov Center, ЦентрРазумкова) <https://razumkov.org.ua>
- 러시아대통령실 <http://kremlin.ru>

● 투고일: 2022.07.27. ● 심사일: 2022.07.29. ● 게재확정일: 2022.08.28.

## | Abstract |

### **Ukraine East, West, it's the origins of conflict and future. : to the concept of ethnies in A. Smith's**

Song Taehee (SBS Biz)

This article attempts to analyze the East-West conflict in Ukraine through the concept of A. Smith's 'ethnie'. It is not analyzed by dividing a single Ukraine into regional units, but rather by seeing it as a process of forming a nation by two Ethnies. This is analyzed into two dimension, historical and cultural dimension and a political dimension. At the historical and cultural level, it was Western Ethnie who cast Ukrainian nationalism. On the political level, after independence, the East-West ethnies had replaced and shared power until 2014. Since 2014, however, Russia's annexation of Crimea and the declaration of independence in parts of the east have resulted in a power system centered on Western Ethnie. As a result, The Ukrainian nation centered on Western Ethnie has been forming, and this can be confirmed through the results of the Ukraine internal time series survey. It can also be seen that civic identity is strengthened. However, it is still difficult to predict the direction of Ukraine's nation formation. Integration is a task for nation formation. Also, how to overcome the past history of Nazi cooperation is a big task for Ukrainian nation.

<Key words> Ukraine, Ethnie, East-West, Nation, The year of 2014